

# 2021년 2분기 창원시 고용동향

2021. 7

창원상공회의소

# I. 조사개요

## 1. 조사목적

- 본 조사는 고용보험DB를 활용한 창원지역 사업장과 근로자의 규모별, 업종별 고용동향과 퇴직 후 이동경로 등을 파악해 지역의 고용 지원정책 수립에 참고 자료로 제공함을 목적으로 함.

## 2. 조사방법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DB를 활용한 분석
  - 고용보험DB는 고용보험 전산망 운영을 통해 축적된 행정 데이터로써 고용정책 수립, 평가 및 노동시장 동향 분석에 신속하고 세분화된 분석에 활용하기 용이함.
  - 고용보험DB 법적근거
    - 통계법 제18조(통계작성의 승인) 규정에 의한 국가승인통계 (고용보험통계: 승인번호 제327002호)
  - 피보험자의 포괄범위
    - 고용보험 가입자로서 계약형태가 ‘상용’, ‘계약직’인 근로자 단,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주15시간) 미만인 자, 국가·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적용을 받는 자 등은 적용되지 않음
  - 고용보험DB 이용 시 유의사항
    - 분기 중 최신 월의 통계는 잠정치 통계이며, 익월 발표시 확정치로 대체됨
    - 고용보험DB는 공공고용서비스 영역에 대한 전수행정자료이며, 포괄하지 않은 부분(자영업자, 미가입자, 구직급여를 받지 않는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등)이 있으므로 이용 시 유의
    - 서비스업은 일용근로자 비중이 대체로 높아 전체 동향을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음

## 3. 조사기간

- 2021년 8월 2일 ~ 4일

## 4. 조사사항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규모별, 업종별)
-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자수
- 고용보험 적용사업장 수(규모별, 업종별)

## II. 요약 및 시사점

### ◎ 제조업 근로자 수, 30개 분기 만(7년 6개월)에 증가세로 전환

- 2021년 2분기 창원지역 고용보험 피보험자(이하 근로자) 수가 전년 동기 대비 2.5% 증가한 25만 7,693명을 기록했다.
- 업종별로 서비스업이 13만 5,892명으로 전년 대비 3.3% 늘며, 추세적 증가세를 이어갔다. 눈에 띄는 것은 제조업 근로자 수가 10만 8,689명으로 전년 대비 1.9% 증가했다는 점임. 제조업에서 근로자 수 증가를 보인 것은 2013년 4분기 이후 30개 분기(7년 6개월) 만에 처음임.
- 제조업 근로자 수가 증가세로 추세전환을 이룬 것은 아니나,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했던 지난해의 고용충격에는 다소 벗어난 것으로 풀이됨.

### ◎ 전기장비와 전자부품 업종이 제조업 근로자 수 증가 견인

- 창원 제조업의 근로자 수 증가를 이끈 업종은 '전기장비'와 '전자부품'으로 전년 대비 각각 11.2%, 10.5% 증가했음. 전기장비제조업 중에서도 특히 '가정용 기기 제조업'의 근로자 수가 전년 대비 20.5% 증가했음.
-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가전제품의 수요 증가와 관련 기업의 창원 유입이 일 자리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됨.

### ◎ 취업자 수와 자발적 퇴직자 비중 증가, 고용시장 회복하는 모습

- 취업자와 퇴직자 수 모두 증가하며, 둔화되었던 고용시장이 다소 회복하는 모습임. 2분기 취업자 수는 2만 9,881명으로 전년 대비 17.3% 증가했고, 퇴직자 수는 2만 5,821명으로 3.7% 늘었음.
- 퇴직 사유별로 '개인사정에 의한 자진퇴사'가 64.9%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계약만료 및 공사종료' 16.7%, '회사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11.8%, '폐업 및 도산' 2.3% 비중을 보였음.
- 지난해 2분기 '회사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24.3%) 비중과 비교해 12.5%p 비중 감소를 보인 반면,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46.9%)는 17.9%p 비중 증가를 보였음.

### Ⅲ. 창원시 고용동향

#### 1. 창원시 근로자(고용보험 피보험자) 현황

- 2021년 2분기 말 기준 창원지역 고용보험<sup>1)</sup>에 가입 상시근로자(고용보험 피보험자, 일용직 근로자 제외) 수는 25만 7,693명임. 이는 전년 동 분기 대비 2.5%(6,253명) 증가한 수임.
- 규모별로 ‘3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수는 3.0% 증가한 6만 1,931명, ‘10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 3만 4,825명(+5.1%), ‘1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 9만 4,956명(+2.9%), ‘10인 미만 사업장’ 6만 5,981명(+0.2%)을 기록했다.

창원시 규모별 근로자 수 동향

(단위 : 명)

구분	2018	2019	2020				2021	
	2Q	2Q	1Q	2Q	3Q	4Q	1Q	2Q
전체	246,887 (0.7%)	251,730 (2.0%)	251,418 (-0.7%)	251,440 (-0.1%)	255,260 (1.5%)	252,941 (-0.1%)	254,315 (1.2%)	257,693 (2.5%)
10인 미만	60,886 (2.6%)	62,398 (2.5%)	65,262 (6.3%)	65,861 (5.5%)	67,717 (6.1%)	69,393 (6.8%)	63,968 (-2.0%)	65,981 (0.2%)
10인 이상 100인 미만	93,621 (1.0%)	93,604 (0.0%)	92,469 (-4.3%)	92,289 (-1.4%)	92,793 (-0.3%)	92,220 (-0.4%)	93,790 (1.4%)	94,956 (2.9%)
100인 이상 300인 미만	33,564 (-0.8%)	33,793 (0.7%)	33,725 (-6.2%)	33,144 (-1.9%)	33,349 (-0.4%)	32,438 (-2.2%)	34,620 (2.7%)	34,825 (5.1%)
300인 이상	58,816 (-1.0%)	61,935 (5.3%)	59,962 (1.4%)	60,146 (-2.9%)	61,401 (0.2%)	58,890 (-5.4%)	61,937 (3.3%)	61,931 (3.0%)

<자료 : 고용보험DB, 고용노동부>

※ 분기 말 상시(상용+임시) 근로자 기준, 일용근로자 및 임의가입 자영업자 제외

- 1) 고용보험 적용제외 근로자(고용보험법 제8조, 10조 및 령 제2조, 제3조)
-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단,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은 적용)
  - 1개월 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 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직 공무원 및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는 본인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실업급여에 한함)에 가입할 수 있음.
  -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별정우체국 직원
  - 외국인근로자(재외동포의 체류자격을 가진자 중 보험가입신청자, 영주의 체류자격을 가진자는 제외)

## 2. 창원시 업종별 근로자 현황

- 창원 전체 근로자 수가 전년 대비 증가를 보인 가운데, 서비스업이 13만 5,892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3% 증가했고, 제조업도 10만 8,689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 늘었음.

서비스업 근로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한편, 제조업의 근로자 수도 증가세를 보였음. 제조업 근로자 수가 전년 대비 증가를 보인 것은 2013년 4분기 이후 30개 분기(7년 6개월) 만에 처음임.

창원 업종별 근로자 수 동향

(단위 : 명)

구분	2018	2019	2020				2021	
	2Q	2Q	1Q	2Q	3Q	4Q	1Q	2Q
전 체	246,887 (0.7%)	251,730 (2.0%)	251,418 (-0.7%)	251,440 (-0.1%)	255,260 (1.5%)	252,941 (-0.1%)	254,315 (1.2%)	257,693 (2.5%)
제조업	110,919 (-0.4%)	109,466 (-1.3%)	109,126 (-0.9%)	106,694 (-2.5%)	106,709 (-1.6%)	107,552 (-0.2%)	108,133 (-0.9%)	108,689 (1.9%)
서비스업	122,451 (1.9%)	129,012 (5.4%)	129,077 (-0.3%)	131,551 (2.0%)	135,120 (4.1%)	132,240 (0.1%)	132,964 (3.0%)	135,892 (3.3%)
건설업	10,314 (-2.6%)	9,985 (-3.2%)	9,740 (-3.9%)	9,878 (-1.1%)	9,886 (-0.7%)	9,934 (-0.4%)	9,906 (1.7%)	9,931 (0.5%)
기타	3,203 (3.0%)	3,267 (2.0%)	3,475 (2.1%)	3,317 (1.5%)	3,545 (3.1%)	3,215 (-7.6%)	3,312 (-4.7%)	3,181 (-4.1%)

<자료 : 고용보험DB, 고용노동부>

\* 분기 말 상시(상용+임시) 근로자 기준, 일용근로자 및 임의가입 자영업자 제외

\* 서비스업은 '도매 및 소매업', '운수 및 창고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을 포함하고 있으며, 기타는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을 포함함.

- 창원 제조업의 업종별 근로자 수는 '기계 및 장비'가 2만 9,240명으로 가장 많았고, '전기장비' 1만 7,109명, '자동차 및 트레일러' 1만 6,976명, '1차 금속' 9,505명, '기타 운송장비' 8,826명 순임.

○ 제조업 중 ‘기계 및 장비’(-0.1%), ‘1차 금속’(-3.8%), ‘기타 운송장비’(-8.2%), ‘고무 및 플라스틱’(-4.7%)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전년 동기 대비 근로자 수 증가를 보였음.

○ 제조업 근로자 수의 증가를 이끈 업종은 ‘전기장비 제조업’(+11.2%)와 ‘전자부품’(+10.5%)임. 특히 전지장비 제조업 중 ‘가정용 기기 제조업’의 근로자 수가 전년 대비 20.5% 증가했음.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가전제품의 수요 증가가 일자리 증가로 이어지고 있고, 최근 관련 기업들이 창원으로 이전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됨.

### 창원 제조업 업종별 근로자 수 동향

(단위 : 명,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Q	2Q	1Q	2Q	3Q	4Q	1Q	2Q
제조업	110,919 (-0.4)	109,466 (-1.3)	109,126 (-0.9)	106,694 (-2.5)	106,709 (-1.6)	107,552 (-0.2)	108,133 (-0.9)	108,689 (1.9)
기계 및 장비	31,454 (3.2)	30,888 (-1.8)	29,745 (-4.0)	29,256 (-5.3)	29,014 (-4.9)	29,284 (-2.6)	29,175 (-1.9)	29,240 (-0.1)
전기장비	12,623 (-1.7)	12,941 (2.5)	15,842 (23.4)	15,383 (18.9)	16,070 (27.1)	16,328 (27.4)	16,794 (6.0)	17,109 (11.2)
자동차 및 트레일러	18,380 (-2.9)	17,691 (-3.7)	16,753 (-6.8)	16,663 (-5.8)	16,518 (-6.0)	16,770 (-3.8)	16,976 (1.3)	16,976 (1.9)
1차 금속	12,126 (-3.1)	11,349 (-6.4)	10,803 (-5.6)	9,883 (-12.9)	9,664 (-14.3)	9,667 (-13.2)	9,498 (-12.1)	9,505 (-3.8)
기타 운송장비	9,956 (-8.8)	10,016 (0.6)	9,768 (-3.4)	9,615 (-4.0)	9,488 (-4.5)	8,981 (-9.8)	8,721 (-10.7)	8,826 (-8.2)
금속가공	8,051 (-1.0)	8,014 (-0.5)	7,851 (-2.7)	7,722 (-3.6)	7,742 (-2.5)	7,920 (-0.1)	7,853 (0.0)	7,954 (3.0)
전자부품	6,215 (3.3)	6,397 (2.9)	6,357 (0.0)	6,380 (-0.3)	6,375 (0.0)	6,535 (3.5)	6,916 (8.8)	7,051 (10.5)
정밀 광학	3,490 (5.1)	3,445 (-1.3)	3,579 (3.0)	3,470 (0.7)	3,490 (1.1)	3,566 (-0.6)	3,605 (0.7)	3,550 (2.3)
식료품	1,501 (-2.8)	1,634 (8.9)	1,624 (-1.6)	1,608 (-1.6)	1,621 (-4.5)	1,680 (-0.2)	1,671 (2.9)	1,692 (5.2)
고무 및 플라스틱	1,823 (-4.5)	1,756 (-3.7)	1,722 (-4.2)	1,728 (-1.6)	1,736 (-0.4)	1,756 (1.6)	1,826 (6.0)	1,646 (-4.7)
기타	5,300 (10.5)	5,335 (0.7)	5,082 (-6.0)	4,986 (-6.5)	4,991 (-5.2)	5,065 (-1.5)	5,098 (0.3)	5,140 (3.1)

<자료 : 고용보험DB, 고용노동부>

\* 분기 말 상시(상용+임시) 근로자 기준, 일용근로자 및 임의가입 자영업자 제외

\* 기타 제조업은 ‘가구’, ‘가죽·가방 및 신발’, ‘목재 및 나무제품(가구제외)’, ‘비금속 광물제품’, ‘섬유제품(의복제외)’, ‘음료’,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의복·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의약품 제외)’을 포함함.

- 창원 서비스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가 3만 6,983명으로 가장 많았고, ‘도매 및 소매업’(1만 5,143명),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1만 4,104명), ‘전문, 과학 및 기술’(1만 3,137명), ‘운수 및 창고업’(1만 407명), ‘교육’(9,214명), ‘숙박 및 음식점업’(8,627명)이 뒤를 이었음.
- 보건 및 방역강화와 정부 주도의 공공일자리 증가, 소비촉진 및 내수활성화 지원책 등의 영향으로 ‘보건업 및 사회복지’(+6.3%), ‘공공행정’(+4.2%), ‘도매 및 소매업’(+2.4%), ‘숙박 및 음식점업’(+0.9%) 등의 서비스업이 대체로 증가한 모습임. 반면 ‘운수·창고’(-1.2%), ‘금융·보험’(-1.7%), ‘여가활동 관련’(-7.2%) 서비스업은 근로자 수 감소를 보였음.

### 창원 서비스업의 근로자 수 추이

(단위 : 명)

구분	2018	2019	2020				2021	
	2Q	2Q	1Q	2Q	3Q	4Q	1Q	2Q
서비스업	122,451 (1.9)	129,012 (5.4)	129,077 (-0.3)	131,551 (2.0)	135,120 (4.1)	132,240 (0.1)	132,964 (3.0)	135,892 (3.3)
보건· 사회복지	30,095 (4.2)	32,807 (9.0)	33,852 (6.1)	34,784 (6.0)	35,433 (5.9)	35,436 (5.0)	35,928 (6.1)	36,983 (6.3)
도·소매업	14,262 (2.8)	14,762 (3.5)	14,479 (0.8)	14,783 (0.1)	14,920 (1.6)	14,853 (1.2)	15,006 (3.6)	15,143 (2.4)
시설관리·사업 지원 및 임대	16,621 (3.3)	15,301 (-7.9)	14,549 (-4.2)	14,047 (-8.2)	13,803 (-6.7)	13,889 (-5.4)	13,886 (-4.6)	14,104 (0.4)
전문 과학·기술	11,278 (-3.0)	11,783 (4.5)	12,221 (5.0)	12,404 (5.3)	12,573 (5.8)	12,937 (8.1)	12,774 (4.5)	13,137 (5.9)
운수·창고업	10,611 (-0.7)	11,003 (3.7)	10,604 (-3.4)	10,529 (-4.3)	10,419 (-5.3)	10,225 (-6.2)	10,290 (-3.0)	10,407 (-1.2)
교육	7,482 (-2.9)	8,423 (12.6)	8,307 (6.7)	8,751 (3.9)	8,846 (4.3)	8,841 (1.9)	8,820 (6.2)	9,214 (5.3)
숙박·음식점	7,360 (11.3)	8,205 (11.5)	8,533 (7.8)	8,547 (4.2)	8,785 (3.7)	8,622 (-2.0)	8,454 (-0.9)	8,627 (0.9)
공공·국방· 사회보장	4,308 (19.3)	5,540 (28.6)	5,122 (-41.7)	5,957 (7.5)	8,058 (51.8)	5,632 (-19.3)	6,193 (20.9)	6,210 (4.2)
협회·단체 및 기타	5,692 (-7.0)	5,788 (1.7)	5,728 (-2.0)	5,884 (1.7)	5,986 (4.2)	5,760 (1.5)	5,959 (4.0)	6,099 (3.7)
부동산업	5,125 (2.5)	5,173 (0.9)	5,474 (6.5)	5,525 (6.8)	5,823 (6.6)	5,605 (3.8)	5,607 (2.4)	5,668 (2.6)
금융·보험업	5,142 (-0.6)	5,176 (0.7)	5,126 (-0.7)	5,161 (-0.3)	5,160 (-0.4)	5,139 (-0.7)	5,057 (-1.3)	5,072 (-1.7)
정보통신업	2,370 (-0.3)	2,530 (6.8)	2,531 (4.9)	2,535 (0.2)	2,654 (3.3)	2,751 (5.9)	2,660 (5.1)	2,775 (9.5)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2,105 (-11.7)	2,521 (19.8)	2,551 (8.2)	2,644 (4.9)	2,660 (-3.8)	2,550 (-7.7)	2,330 (-8.7)	2,453 (-7.2)

<자료 : 고용보험DB, 고용노동부>

\* 분기 말 상시(상용+임시) 근로자 기준, 일용근로자 및 임의가입 자영업자 제외

### 3. 창원시 고용보험 자격 취득(취업)·상실(퇴직) 현황

- 2021년 2분기, 노동이동의 정도를 보여주는 취업자 수는 2만 9,881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3% 늘었고, 퇴직자 수도 2만 5,821명으로 3.7% 증가했음.
- 취업자 수는 지난 분기에 이어 2개 분기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였음. 지역 제조업의 장기침체와 코로나19 확산이 더해져 둔화되었던 고용시장이 올해 회복하는 모습임.
- 취업자 중 경력취업자는 18.4% 증가한 2만 6,841명, 신규취업자는 8.6% 증가한 3,040명을 기록했음.

#### 취업 및 퇴직자 수

(단위 : 명)

구분	2018	2019	2020				2021	
	2Q	2Q	1Q	2Q	3Q	4Q	1Q	2Q
취업자	30,148 (11.7)	27,329 (-9.4)	33,626 (-14.5)	25,474 (-6.8)	29,675 (11.0)	26,063 (-4.9)	38,026 (13.1)	29,881 (17.3)
신규취업자	2,930 (-3.3)	3,038 (3.7)	4,052 (-22.2)	2,798 (-7.9)	3,469 (8.7)	3,047 (-0.7)	4,764 (17.6)	3,040 (8.6)
경력취업자	27,218 (13.5)	24,291 (-10.8)	29,574 (-13.3)	22,676 (-6.6)	26,206 (11.3)	23,016 (-5.4)	33,262 (12.5)	26,841 (18.4)
퇴직자	28,740 (15.3)	27,979 (-2.6)	38,243 (-0.8)	24,892 (-11.0)	25,732 (-2.6)	28,045 (12.2)	35,819 (-6.3)	25,821 (3.7)

※ 행정통계를 확정된 이후 취득·상실에 대한 수정신고 등이 있을 수 있어, '전분기 피보험자 + 당분기 취득자 - 당분기 상실자'가 당월 피보험자와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2분기 퇴직자 수가 전년 대비 증가한 가운데, 퇴직 사유별로 살펴보면 '개인사정에 의한 자진퇴사'가 1만 6,746명(비중 64.9%)로 가장 많았고, '계약만료 및 공사종료' 4,319명(16.7%), '회사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3,048명(11.8%), '폐업 및 도산' 593명(2.3%) 순임.
- 코로나19의 영향이 본격화되었던 지난해 2분기 퇴직사유로 '회사불황으로 인한 인원 감축'이 24.3%를 차지했던 것에 반해, 올해 2분기는 11.8%의 비중을 보



여 12.5%p 줄어든 모습임.

반면 고용시장의 회복됨에 따른 이직성향이 높아지면서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비중이 64.9%로 나타나 지난해 2분기와 비교해 17.9%p 높은 비중을 나타냈음.

### 2021년 2분기 사유별 퇴직자 수

(단위 : 명)

퇴직 사유	2020 2분기	2021년 2분기	전분기 대비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12,120 (46.9%)	16,746 (64.9%)	17.9%p
계약만료, 공사종료	4,240 (16.4%)	4,319 (16.7%)	0.3%p
회사불황으로 인원 감축 (해고, 권고사직, 명예퇴직 포함)	6,278 (24.3%)	3,048 (11.8%)	-12.5%p
폐업, 도산	1,255 (4.9%)	593 (2.3%)	-2.6%p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권고사직	353 (1.4%)	369 (1.4%)	0.1%p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 변동, 임금체불 등 자진퇴사	249 (1.0%)	260 (1.0%)	0.0%p
정년	171 (0.7%)	210 (0.8%)	0.2%p
고용보험 비적용	105 (0.4%)	127 (0.5%)	0.1%p
이중고용	66 (0.3%)	91 (0.4%)	0.1%p
기타	999 (3.9%)	1,115 (4.3%)	0.4%p
분류불능	55 (0.2%)	58 (0.2%)	0.0%p
계	24,892 (100%)	25,821 (100%)	

<자료 : 고용보험DB, 고용노동부>